

A Study on the Predictive Causal Model of Codependency for introducing Implications in Family Welfare Policy – Basing on the application of Triple ABC-X Model –

Sunyoung Ju *, Seong-Ok Kweon**, Hwieseo Par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predictive causal model of codependency that is a main issue of family problem on the base of Triple ABC-X model which is a kind of family stress model.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reviewe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codependency, affecting factors of codependency, and then reviewed the basic concept and logic of Triple ABC-X Model as theoretical viewpoint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predictive causal model of codependency. We established it through examining main variables of codependency from Triple ABC-X Model. Main ingredients of the predictive causal model include boundary ambiguity, internal working model, internal and external locus of control, self-regard, social support, individual maladjustment etc. We established a predictive model of codependency basing on logic inferences among the variable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basic data to introduce some implications and for hereafter research.

▶ Keyword : Triple ABC-X Model, Codependency, Boundary Ambiguity, Internal Working Model

I . Introduction

동반의존 현상에 대한 연구는 알코올 중독자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한 상담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그들 가족들에게는 보통 가족과는 달리 누군가에 대한 심한 의존과 집착현상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개념으로 동반의존 현상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 가정의 경우, 가족 구성원이 특정 대상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몰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초점, 자기무시, 자존감의 하락, 부정과 억압, 의료 및 가족문제 등이 주요 가족문제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동반의존은 알코올 의존자의 배우자나 자녀들 그리고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위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고 있으며, 학문적·임상적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동반의존 현상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연구결과들은 중독분야와 가족상담 분야에 적용되어 실제적 효과를 거두어 왔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이 주제가 관련 중독현장에서 일하거나, 사회복지나 상담심리를 전공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잘 알려진 것이 아니다. 또한 동반의존으로 인해 야기되는 절망이나 불행, 황폐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동반의존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적으로 유교적 가부장적 권위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종속되어 살아오면서 많은 심리적 아픔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아픔은 억압된 분노, 좌절감, 열등감, 고착심리, 상처, 강박

• First Author : Sunyoung Joo, Corresponding Author : Hwieseo Park
*Sunyoung Ju (sunju3@daum.net) Korean Cultural & Welfare Institute
**Seong-Ok Kweon (kso1255@hanmail.net). Dept of Social Welfare, Songwon University
***Hwieseo Park (hspark@chosun.ac.kr)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 Received: 2017. 02. 16, Revised: 2017. 02. 21, Accepted: 2017. 02. 28.

행위, 관계의 어려움 등의 심리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위장장애, 신경통, 화병, 화병 등의 심신적인 문제로 까지 나타났다. 물론 최근에는 남녀 평등사상이 강조되고 있지만 가부장적 유교문화는 여전히 우리 문화에 남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동반의존성은 우리 사회에서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 동안 동반의존에 대해서는 알콜리즘에 의한 가족의 질병으로만 연구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동반의존은 오랫동안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대인관계나 인격특성으로 보고되고 있다[1]. 죽음, 질병등과 같이 갑자기 발생하는 사건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게 된다. 그 결과 높은 스트레스 반응으로서 경계의 모호성이 진행되고, 동반의존은 이러한 경계 모호성에 대한 대처수단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경계의 모호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은 애착대상에 대한 반복된 상호작용경험을 토대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불안정한 인지모델, 즉 불안정한 내부작동 모델을 형성하게 되고 이에 따른 동반의존이 진행된다. 결국 동반의존 현상은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어 누적되면 개인에게 긴장과 고통을 안겨주며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협한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동일한 수준의 생활스트레스나 어려운 일을 경험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 또는 가족의 자원,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상황의 인식에 따라 그 적응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반의존은 스트레스 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스트레스 이론인 Anderson 등(1993)의 Triple ABC-X이론[2]은 동반의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유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Triple ABC-X이론을 바탕으로 동반의존에 관한 이론모형을 탐색해 보는데 연구목적의 두고 있다. 특히 동반의존과 경계의 모호성 사이의 관계를 검토해 보고, 동반의존의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탐색해 보았다.

II. Understanding of Codependency

1. Concept of Codependency

동반의존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동반의존은 개념화 하는 방식에 따라 중독의 하위 질병, 성격장애, 관계 문제라고 한다. 어떤 대상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이 특징이며, 핵심증상으로는 타인초점, 자기무시, 자존감의 하락, 부정과 억압, 의료 및 가족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동반의존은 육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방치, 또는 과도한 외상 등의 가족환경에서 만성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3]. 이는 동반의존의 확장된 개념이며, Wegscheider-Cuse(1988)는 동반의존이 알코올 중독자의 가

족들뿐만 아니라 감정표현이 억압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누구나 겪게 된다고 하였다[4]. HyunJin Kim(2001)은 한국사회의 유교적 가부장적 요소들이 여성들에게 동반의존성 특징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5]. 광욱환 외(2003)의 연구에서도 아동기 가정 내 스트레스가 동반의존과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상습적인 구타'와 '아동기에 부모와의 사별'이 '부모의 알콜리즘'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6]. 또한 정신병리로서 동반의존이 우울증과 대상관계의 어려움, 현실지각 능력의 감소, 강박증후군, 충동성, 공포증, 전반적 불안 장애, 공황장애, 광장 공포증 등과 연관성이 높다고 하였다[7]. Beattie(1987)는 14개의 범주로 동반의존의 236개 특성을 나열했다. 그 특성들은 낮은 자기 가치, 억압, 강박관념, 통제, 회피, 의존성, 의사소통의 어려움, 약한 경계선, 신뢰부족, 분노, 성적 문제, 그리고 목표달성의 문제로 분류하였다[8]. 더 넓은 의미로 동반의존을 개념화한 Whitfield(1989)는 동반의존을 다른 사람의 욕구 또는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와 관련하여 고통 받고 역기능적이 되고, 자신의 외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중독되었음을 지적하였다[9].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욕구를 가지며,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고, 경계를 일그러뜨리며, 부인하고 위축된 감정들을 가지며 역기능적인 사람들과 얽혀 문제에 휘말리는 특성을 가지는 인격 장애라고 하였다[10].

Wright & Wright(1991)는 동반의존을 역기능적인 배우자와 동반의존 관계에서 나타난 태도나 행동으로 정의하였는데, 가치중독성, 구조지향, 변화지향, 과도한 책임감과 통제로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하였다[11]. 그러나 중독된 사람과 관계에서 반드시 동반의존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12], 동반의존은 그 자체가 중독될 수 있는 독특한 장애라고 할 수 있다[13].

이 연구에서 동반의존은 다른 사람과 관련된 역기능적 행동양식을 통해 나타난 심리사회적 상황으로 이 행동양식은 자신의 외부 대상에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몰입하는 타인초점/자기무시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하며, 자존감 결여, 감정표현의 부족, 가족 문제 등이 핵심증상이다. 이러한 동반의존은 처음에는 부모 또는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문제에 대한 반응과 같은 외적 요인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나, 시간이 지나면서 높은 스트레스나 역기능 가족에 대한 반응이나 배우자의 태도에 대한 반응인 대처 기제로 개인의 특성 안에 습관화되고 흡수된다.

2. Characteristics of Codependency

첫째, 왜곡된 사고를 보인다. 동반의존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사고가 왜곡되어 있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거부하고, 망상, 분리의 특징을 보인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자기 합리화, 은폐, 속임 등의 행태를 보인다. 또한 망상에 젖어 현실을 무의식적으로 바꾸거나 왜곡하게 되며, 대체적으로 실상과 자신을 분리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믿게 된다.

둘째, 왜곡된 감정을 보인다. 동반의존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억압(분노)되어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현실에서 자신을 분리하여 실제 발생한 일을 부인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감정을 억압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감정을 억압한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면 감정의 혼합 상태가 된다. 이러한 감정의 혼합 상태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를 더 이상 모르게 된다. 즉,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치심인지, 상처인지, 아니면 분노인지 더 이상 모르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왜곡된 행태를 보인다. 동반의존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강박증, 조종, 친밀감 형성의 어려움 등의 특징을 보인다. 감정적으로 억압받아 감정적 종양이 발생하면 기분전환용 약물이나 특정 강박행동에 의존하여 해소하게 된다. 약물이나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등은 감정적 종양을 해소하는데 쓰이는 화학물이다. 그리고 성적 행위나, 관계의존, 타인을 조종 또는 돌보기, 지나친 소비와 도박들은 감정적 종양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들이다. 조종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동반의존자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도이다. 동반의존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그들은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혼자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가족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

III. Affecting Factors of Codependency

1. Boundary Ambiguity

경계 모호성은 가족스트레스의 증가와 가족의 역기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경계 모호성이란 누가 가족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지에 대해 가족구성원들의 인식이 분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15]. Boss 등(1990)은 경계의 모호성에 대해 높은 경계의 모호성 수준과 높은 가족스트레스 수준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고 경계가 불분명한 가족은 높은 스트레스와 높은 우울증 현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16]. 따라서 경계의 모호성은 불안정 작동모델들의 내면화에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에서 발생한 경계의 모호성에 대한 결과로 동반의존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경계모호성의 결과로 Visher & Visher(1988)는 세대 간 경계가 약하거나 모호할 때, 부정적 영향이 개인에게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17]. 경계의 모호성은 낮은 자존감, 우울증, 외로움이나 친밀감의 어려움, 스트레스, 그리고 역기능과 관련된 특징이 있다.

Boss(1990)는 스트레스로 가족 구성원의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질병이나 모호한 상실에 대한 반응인 인식의 변화를 설명했다[18]. 경계의 모호성의 수준에 보면, 개인에 의한 지각된 스트레스의 수준은, 기능의 특정 측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상황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인식 중에서 통제의 외부소재와 같은 무력감은 아동기와 성인애착 모두에서 볼 수 있는 불안정 작동 모델의 내재화와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동반의존이라는 높은 비용 지불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수단으로서 동반의존이 사용될 수 있다. 즉, 동반의존은 가족경계의 불안정성에 대한 반응으로 개발된 내부작동 모델의 내재화의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Internal Working Model

내부작동 모델은 관계에서 형성된 개념으로, 아동의 발달, 특히 사회성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Kobak과 Hazan(1991)에 따르면, 내부작동 모델은 어떤 한 개인이 관계 속에서 타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며, 부모 또는 중요한 타인의 반응이 거부나 일치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예측했을 때, 개인은 불안정 내부 작동 모델을 가지고 이에 응한다고 하였다[19]. 아동은 초기에 양육자로부터 거부되거나, 무시, 방임과 같은 부정적인 취급을 받게 되면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반복된 좌절로 인하여 여러 가지의 부적응이 수반될 수 있다[20]. 또한 내부작동 모델은 어린 시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데, 이것은 자신과 타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애착형성이 부정적으로 된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해 왜곡된 방식으로 인식하게 된다. Kobak and Hazan(1991)은 내부 작동 모델에 의해, 개인과 가족 내에서 부정확하거나 모순되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인 높은 경계의 모호성이 불안정 내부 작동 모델의 내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19]. 따라서 이러한 내면화의 결과로서 동반의존을 발생시킨다고 본다.

3. Coping Resources

첫째, 개인적 대처자원으로 자존감을 들 수 있다. 자존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결과를 보호하는 요인으로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내적 자원이다. 자존감은 정신건강을 진단하는 개념으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는 것이다. Rosenberg(1965)에 의하면, 자존감이란 자신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관련되며, 자신에 대한 가치와 존경하는 정도라고 하였다[21]. 이러한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자존감이 없는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22]. 따라서 자존감은 정신건강의 핵심적 요소로 심리적 행복감의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이다. Kleiwer & Sandler(1992)의 자존감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비교적 적응을 잘하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쉽게 포기하거나 회피하며 부정적 반응을 보여준다고 하였다[23]. 따라서 높은 자존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내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 높은 자존감은 지속된 스트레스로 인한 경계 모호성과 내부작동모델과 그 결과인 동반의존 사이의 인

과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대처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지역사회의 자원으로서 사회적 지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게서 받는 유형 또는 무형의 도움으로, 개인이 인간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며, 스트레스로부터의 보호이며 안정적인 대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24]. 스트레스와 관련한 사회적지지 효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 하나는 주효과 모형으로, 이것은 사회적 지지가 전반적으로 개인의 적응을 향상시킨다는 것으로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과 관계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완충효과 모형으로, 이것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요인에 내재된 유해한 자극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다르다[25]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지속된 스트레스와 동반의존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즉, 사회적 지지는 동반의존을 완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대처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4. Cognitive Factors : Internal and External Locus of Control

Boss(1987)는 문제상황을 보는 인지유형에 따라 그 문제를 극복하거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였다[26]. 이러한 접근은 '통제위치' 또는 '통제소재'는 개인의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해 강화의 가치나 기대, 심리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Rotter의 이론[27]에서 비롯된다. 개인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또는 일상생활에서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해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즉 성패의 원인이 내부에 있는가 아니면 외부에 있는가에 따라 '내적 통제자(내재론자)'와 '외적 통제자(외재론자)'로 구분된다. 내적 통제자는 어떤 사건의 발생이나 그 결과를 자기 자신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여 스스로 통제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외적 통제자는 사건의 발생이나 그 결과가 기회나, 운 등 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Stern 외(1982)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내적 통제성향의 사람이 스트레스를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내적 통제자가 문제 중심적인 대처 행동을 통해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는 반면, 외적 통제자는 부정적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기방어적인 성향을 보임으로써 실제 생활에서 비교적 높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지적 평가는 개인과 환경 간에 발생하는 복잡한 상호작용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동일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서도 정서적·행동적인 반응상의 개인차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Boss(1987)는 내외통제 소재를 반영하여 동반의존을 설명하였는데, 동반의존은 자신의 외부에 극단적인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목적을 유도하기 위해 동반의존된 사람 속에 반영된 것으로, 통제의 외부 소재의 반영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14]. 이 통제의 외부 소재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동반의존에 대한 개인의 내외통제소재의 인지적 요소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체계로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동반의존은 동반의존의 높은 수준과 관련되어 있는 통제의 외부소재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V. Establishing Predictive Causal Model of Codependency

1. Theoretical Orientation : Anderson's Triple ABC-X 모델

가족 스트레스 모델로는 Hill의 가족스트레스 모델을 토대로 McCubbin & Patterson(1983)의 Double ABC-X모델[29], FAAR 모델(Family Adjustment and Adaption Response), Anderson 등의 조절 및 적응의 유형모델(Typology Model of Adjustment and Adaptation)[2] 등이 있다. Hill의 모델에서는 위기에 처한 가족의 취약성은 스트레스 요인(A 요인)과 기존의 자원요인(B 요인), 가족의 인지요인(C 요인) 그리고 이들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X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McCubbin 외(1983)[30] Double ABC-X 모델에서는 스트레스 요인의 누적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영향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누적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해결보다는 문제의 상황이 가중되어 이중적이고 급증된다. 이 모델은 개인과 가족의 적응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ABC-X모델에 네 가지 요인을 추가하였다. Double ABC-X 모델의 네 가지 추가요인으로는 스트레스 원의 누적과 긴장(A), 가족의 내·외부에서 기존의 자원과 새로운 자원을 획득·활용하려는 노력(B), 가족의 상황에 대한 재정 의(C), 그리고 가족의 적응(X) 단계 등이다. Double ABC-X 모델에서는 누적된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이나 가족이 가지고 있는 대처자원으로는 크게 개인자원, 가족체계자원, 사회자원으로 구분되고, 이들 자원뿐만 아니라 인지적 평가와 상황에 대한 정의가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30].

Anderson 등은 McCubbin 과 McCubbin(1989)의 모델을 수정하여 Triple ABC-X모델을 제시하였다[2]. 이 모델(Fig. 1)에서는 개인과 가족들이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하는 개인적 자원(B), 누적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BB), 지역사회 자원(BBB)으로 스트레스 요인(A)과 누적된 스트레스 요인(AA)에 반응하게 된다고 제시하였다.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 요인의 누적으로 야기된 위기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은 그들의 세계관(CCC)과 스트레스 요인의 인지(C), 누적된 스트레스 요인의 인지(CC) 등에 따라 다르다고 보았다. 이러한 모델을 수정한 수정모델에서는 가족들의 인지뿐만 아니라 가족의 가용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 유형(T)이 포함되고, 문제해결/대처기술(PSC)도 모형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변수들이 각각 상호작용을 통하여 조정과 적응(X, XX)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족스트레스 모형은 가족수준에 초점을 맞춘 모델로 동반의존 현상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의미가 있으나 개인수준도 포함하는 포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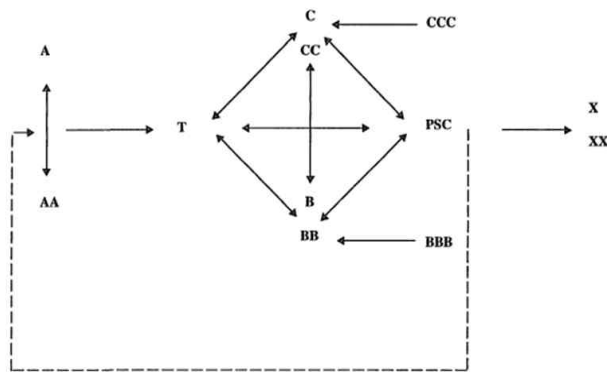


Fig. 1. Triple ABC-X Model

2. Establishing Predictive Causal Model of Codependency

이상의 Triple ABC-X Model 관점에서 동반의존 현상의 이론모형을 정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앞의 동반의존의 영향요인 가운데 경계 모호성은 스트레스 요인 (A)으로 볼 수 있으며, 내부작동모델이나 애착양식은 개인의 유형(T)로 볼 수 있다. 또 개인의 자존감과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하는 개인적 자원(B)에 해당되며 사회적 지지는 지역사회 자원(BBB)로 적용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자원으로 자존감, 지역사회 자원으로 사회적 지지는 경계의 모호성과 불안정 내부작동 모델(A)에 따른 동반의존(X)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개인의 외적 대처자원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믿음, 신념과 관련이 있는 내외통제소재와 같은 인지적 요소는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상황에 대한 정의와 인지적 평가체계(C)로서 적용할 수 있다. 동반의존은 결과변수인 개인적 부적응으로 볼 수 있으나 높은 경계 모호성에 대한 대처행태나 문제해결(PSC)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동반의존은 경계 모호성이 개인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선정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Triple ABC-X Model을 근거로 제시해 보면 그림 2. 와 같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높은 경계 모호성은 불안정한 내부작동 모형을 초래하고, 이에 대한 대처행태로서 동반의존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동반의존은 인지적 요소인 내외통제소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경계 모호성과 불안정한 내부작동 모델, 동반의존은 개인의 부적응행태를 초래하고, 이 인과경로에서 동반의존은 높은 경계 모호성, 불안정한 내부작동 모델과 개인의 부적응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기도 하고 조절하기도 하는 것으로 추론하였다. 마지

막으로 대처자원이라 할 수 있는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는 위의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조절하는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Fig 2.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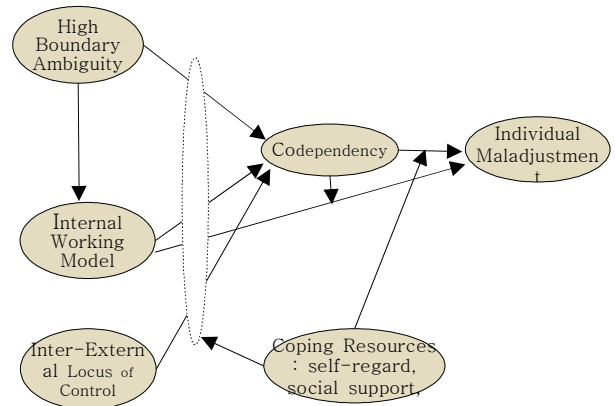


Fig. 2 Predictive Causal Model of Codependency

V. Conclusion

이 연구는 일종의 가족 스트레스 모형인 Triple ABC-X 모형을 바탕으로 동반의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인과모형을 추론해 본 연구이다. 이 연구는 그 동안 동반의존에 관한 국내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동반의존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이론을 바탕으로 동반의존에 관한 다음과 같은 추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스트레스로 인한 높은 수준의 경계 모호성이 불안정한 내부작동모델과 연관이 있으며, 높은 수준의 경계의 모호성에 대한 개인의 적응반응으로 동반의존이 발전되었을 것이다. 또한 동반의존은 불안정한 내부 작동모델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따라서 경계 모호성은 내부작동모델을 통하여 동반의존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동반의존은 경계 모호성과 불안정한 내부작동 모델이 개인의 부적응에 미치는 인과경로에 있어서 매개역할과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개인의 자존감 수준과 사회적 지지는 대처자원으로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넷째, 개인의 인지 특성인 내외통제소재는 자신의 동반의존 수준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관련 변수들의 조작화를 통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Fuller, Julie A. & Warner, Rebecca M., Family stressors

- as predictors of codependency,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26(1): pp.5-22. 2000
- [2] Anderson, M., Bell, N., Fisher, J., Munsch, J., Peek, C., & Sorell, G. Applying a risk-taking perspective. In N. Bell & R. Bell (Eds.), *Adolescent risk taking*. London: Sage. 1993
- [3] Loughhead, T. A., "Addictions as a process: Commonalties or Codependence," *Contemporary Family Therapy*, 13(5): pp. 455-470. 1991
- [4] Wegscheider-Cruse, S., *Codependency: The therapeutic void*, Florida: Health Communications. 1988
- [5] Hyunjin Kim., *Codependency: The impact of confucian marriage and family structure on women in korea*, St. Paul., Minnesota. 2001
- [6] Wookhwan Gwak, "Correlates among Codependency of hospitalized Alcoholic- addicted Patients, Stressors inside Home and Psychopathology" Gyongsang National University M.A. thesis 2003
- [7] Matthew R.J., Wilson W.H., Blazor D.G. & George L.K., "Psychiatric disorders in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m J Psychiatry*, 150(5): pp.793-800. 1993
- [8] Beattie, Melody., *Codependent No More*,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7
- [9] Whitfield, C., *Codependency: "Our most common addiction"*,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6(1): pp.19-36. 1989
- [10] Cermak, T. L., "Diagnostic Criteria for Codependency", *Journal of Psychoactive Drugs*, 18(1): 15-20. 1986
- [11] Wright, P. H. & K. D. Wright., *Codependency: Addictive love, adjustive relating, or both?*, *Contemporary Family Therapy*, 13(5): pp. 435-454. 1991
- [12] Prest, L. A. and C. Storm., "The codependent relationships of compulsive eaters and drinkers: Drawing parallel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6(4): pp. 339-350. 1988
- [13] O'Brien, P. E. and M. Gaborit. "Codependency: A disorder separate from chemical dependenc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8(1): pp. 129-136. 1992
- [14] Boss, P. *Family stres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Springer, pp. 695-723. 1987
- [15] Boss, P. and J. Greenberg., "Family boundary ambiguity: A new variable in family stress theory", *Family process*, 23(4): 535-546. 1984
- [16] Boss, P., Greenberg, J. & Pearce-McCall, D., *The measurement of boundary ambiguity in families: An instrument package*,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St. Paul, MN.: University of Minnesota. 1990
- [17] Visher, E. B. and J. S. Visher., *Old loyalties, new ties: Therapeutic strategies with step families*, New York: Brunner/Mazel. 1988
- [18] Boss, P., "The influence of child development and social psychology training on research and therapy for families stressed with ambiguous loss" In F. Kaslow(Ed.), *Voices in family psychology*. New York: Norton. 1990
- [19] Kobak, R. & Hazan, C., "Attachments in marriage: Effects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pp.861-869. 1991
- [20] Bowlby, J., *Attachment and loss: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Vol. 2, New York: Basic Books. 1973
- [21] Rosenberg, M.,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 61*. 1965
- [22] McKay, Matthew & Fanning., *Messages: The communication skills book*, New Harbinger Publications. 2009
- [23] Kliwer, W. and I. N. Sandler.,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as moderators of stressor-symptom relation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4): pp. 393-413. 1992
- [24] Thoits, P. A.,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 pp.145-159. 1982
- [25] Mee Suh, Boyong Choi, Hanik Jo, "Influence of Life stress, Stress coping style, social support on College student's mental health", *Korean Counseling Society*, 7(2): pp. 271-288. 2006
- [26] Boss, P., "Normative family stress: Family boundary change across the life-span". *Family Relations*, 29(4): pp. 445-450. 1980a
- [27] Rotter, J. B.,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80(1): 1. 1966
- [28] Stern, G. S., T. R. McCants and P. W. Pettine.,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controllable and uncontrollable life events to stress and ill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8: pp. 140-145. 1982
- [29] McCubbin, H. I. and J. M. Patterson., "The family stress process: The double ABCX model of adjustment and adaptation", *Marriage & Family Review*, 6(1-2): pp. 7-37. 1983

Authors



Sunyoung Joo received the M.S. in social welfare from Gwangju University in 2010 and finished Ph.D. course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Chosun University 2016. Sunyoung Ju had

been a missionary and is working as a researcher of Korean Culture & Welfare Institute. She is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practice and rehabilitation & welfare etc.



Seong-Ok Kweon received the Ph.D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from Chosun University in 2005. Seong-Ok Kweon is a professor of Dept of Social Welfare Songwon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Community Social Welfare, and Social Welfare Practice etc.



Hwieseo Park got Ph.D in public administration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93. Hwieseo Park is a professor of Dept. of Social Welfare & Public 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Hwieseo Park is a professor of Dept. of Social Welfare & Public 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ocial welfare policy etc.